

전주국제영화제, 186편 상영작 공개

국제경쟁 본선 진출작 10편... 전 세계 48개국 186편 중 온라인 상영작 141편

‘영화는 계속된다’는 슬로건과 함께 오는 29일 개막하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지난 6일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상영작을 공개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수 조직위원장, 이준동 집행위원장, 전진수, 문성경, 문석 3인의 프로그래머가 자리에 함께했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기자회견은 전주국제영화제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된 상영작 발표 영상으로 시작했다. 전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활영한 김승수 조직위원장과 이준동 집행위원장의 인사 영상에 이어, 배우 최희서의 진행에 따라 본격적인 썸선 및 상영작 소개 영상이 공개됐다. 전진수, 문성경, 문석 프로그래머가 출연한 상영작 발표 영상에서는 올해 선보이는 ‘스페셜 포커스: 코로나, 뉴노멀’과 ‘스페셜 포커스: 인터랙티브 우먼’을 비롯해 전체 썸선과 주요 추천작이 소개됐다.

이어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김승수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포기하지 않고 다방면의 대안을 찾아낸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영화팬들의 안전, 전주 시민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어렵게 준비해온 영화제가 안전하고 즐겁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48개국에서 총 186편이 상영되며, 해외 작품은 109편, 국내 작품은 77편이 소개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처음으로 도입한 온라인 상영 역시 올해에도 이어진다. 전체 상영작 186편 중 온라인 상영작은 141편으로 해외 79편, 국내 62편이 참여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영작은 OTT 플랫폼 웨이브(wavve)에서 관람할 수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전체 상영작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약진하는 신진 감독들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영화를 염원해 소개하는 국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 6일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상영작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전진수, 문성경 프로그래머, 김승수 조직위원장, 진행자 최희서 배우, 이준동 집행위원장, 민성욱 부집행위원장, 문석 프로그래머.

경쟁 본선 진출작 10편 역시 모습을 드러냈다. 아프리카 난민 문제를 다룬 모로코 영화 <파이널 라운드>를 비롯해 ISIS가 점거한 시리아의 한 도시에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버리지 않는 <잔장의 피아니스트>, 기술이 사람들의 올바른 관점에 실제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보여 주는 <모든 곳에, 가득한 빛>, 오스트레일리아의 초현실 코미디 드라마 <친구들과 이방인들>, 콜롬비아 유명 감독인 아버지의 신작 촬영 현장을 지켜보는 다큐멘터리 <아버지는 영화감독>, 20년 전 벌어진 군수 공장 폭발 사고를 다시 바라보는 <파편>, 워낙 가정에서 자란 한 여고생이 새로 들어온 어린 소녀를 돌보며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해변의 금붕어>, 내성적인 여고생 마세와 친구들이 보내는 혼돈의 사춘기를 담은 <스톱-젤리아>, 2차 대

전 당시 유고슬라비아 최초의 레지스탕스였던 97세의 소녀를 다룬 다큐멘터리 <저항의 풍경>, 캐나다 뽕밭 지방에 살고 있는 해체된 가족의 재회를 다룬 실험영화 <뽕밭>가 그 주인공이다.

전진수 프로그래머는 “올해는 세계 영화계에서도 여성 연출자들의 약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작품이 여러 소개된다. 국제경쟁 부문을 통해 젊은 영화인들이 만든 다양한 장르의 쾌기 넘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영화의거리 일대와 OTT 플랫폼 웨이브(wavve), 전주국제영화제 유튜브 계정으로 열린다.

/양은경 기자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 멘티기관·튜터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호남권 사업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021 인생나눔교실’ 호남권 사업에 함께 할 역량있는 멘토봉사단·멘티기관(그룹)·튜터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2021 인생나눔교실(호남권)’은 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장·노년 세대(멘토)와 아동·청소년 등 새내기 세대(멘티)가 서로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인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인문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멘토(선배 세대)와 멘티(새내기 세대)가 서로의 삶의 무늬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문멘토링’ 사업으로 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사업이다.

멘토봉사단과 멘티기관(그룹)은 28일 오후 2시까지, 튜터는 18일까지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jct-life@daum.net)로 신청하면 된다.

‘멘토봉사단’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만 50세(1971년생 또는 이전 출생자) 이상 은퇴자, 은퇴예정자 등 인문·문화예술 분야의 소양과 지식이 풍부하고,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열정 및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멘토봉사단’은 사전

미팅과 멘토-멘티 매칭을 거친 후, 호남권 소재 아동·청소년·청년세대의 멘티기관(그룹)을 찾아가 인문가치를 기반으로 한 멘토링을 진행한다.

‘멘티기관(그룹)’은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소, 자유학기제 중학교, 군부대 등의 기관과 세대 간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인문가치를 나누고 싶은 소규모 그룹 등 5명 이상의 인원과 사업 기간 내 멘토링 운영이 가능한 시간·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관(그룹) 80개 내외를 선정한다. 특히, 인생나눔교실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 관심·협조가 적극적인 기관(그룹)을 선정하며, 사업설명회·업무협약·만족도 조사 등은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튜터’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유사 사업(인문·문화예술 분야 등) 경험 5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5년 이상이거나 멘토의 멘토링 기획·운영 관련 튜터링 및 매개와 지원이 가능한 사람 7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튜터는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로서 인문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조정하고 그룹별 소모임, 애로사항 점검 회의 등 연간 최대 50회 정도의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화사업팀(063-230-744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 디지털화 기록

국내 유일 단오성황제 연혁 기록 문화유산... 3D 스캔 기록화 사업 추진

순창군이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국가민속문화재 제238호) 3D 스캔 기록화 사업을 지난 6일부터 착수해 7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은 가로 180cm, 세로 54cm의 송판 2장으로 1743년 만들어졌으며, 이 두와 한지로 1,600여 자가 기록된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단오성황제 연혁이 기록된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현판 일부 새겨진 글자가 판독하기 어려워 순창군에서는 정밀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현판의 나뭇결 하나까지 디지털화하여 기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기록화 사업은 디지털 탁본 촬영법이 도입되는데, 이 촬영법은 조명의 각도를 조절하여 표면의 반사율에 따른 빛과 그림자를 3차원 이미지로 얻어서 글자를 읽어 내는 기술이다. 디지털 탁본 촬영법을 통해 판독이 힘들었던 부분에 새로운 글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순창단오성황제 고증 복원을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의 3D 스캔 기록화 작업 모습.

별하다. 이번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의 내용을 정확히 번역, 분석하고 가치를 재확인하여 국가 보물 승격 자료로 활용하면 순창단오성황제 고증 복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신영 문화유산계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연내 순창단오성황제 고증 복원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록화 자료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원형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실내 유희공간에 스마트가든 설치

예술의 전당이 시민들의 몸과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예술의전당 실내 유희공간에 휴식과 심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스마트가든’을 시범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 가든’은 실내에서 잘 자라는 정화식물을 심고 관수 시스템과 조명제어를 자동화해 실내의 온도·습도·미세먼지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내정원이다.

군산예술의전당에 설치한 시설형태는 벽면형

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실내공기정화능력이 뛰어난 호야, 테이브야자, 딸각고무나무 등 5종 640본을 식재했다.

사계절 푸른 스마트가든 실내정원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긴장완화, 심신안정, 공기정화,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이 어려운 이용객들이 실내에서 예술·공연을 보며 정원에서 느낄 수 있는 휴식의 기쁨을 만끽하면 좋겠다”며 “앞으로 공공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녹색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